

내년에는 모든 벤처인이 성공과 친구하기를 염원하며...



(주)휴먼메디텍
대표이사

고 중 석

갈림길에서 행인이 현자에게 물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이죠?”
 행인은 현자가 가리키는 길로 가다가 잃어졌다.
 행인은 씩씩거리며 돌아와서 물었다.
 현자는 같은 답을 했다.
 행인은 또 잃어졌다.
 그가 분기탱천하여 따졌다.
 “왜 자꾸 망하는 길로 보내세요?”
 현자는 “그래도 그 길이 맞다” 라고 하였다.
 요는 넘어진 곳에서 조금만 더 가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필자가 최근에 읽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 라는 책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벤처인

많은 벤처사업가들이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해 무한한 열정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던진다. 그러나 열정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본인 스스로 추구하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 객관과 상식 그리고 냉철함을 간과하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는 내 팔자에, 내 주제에, 운명, ‘숙명’ 같은 비관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힐난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같은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필자가 감히 조언을 하면,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너무 빨리 평가하지 말고 좌절감의 늪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도 가끔은 실패와 오차속에 계신다. 그러나 반성과 기도 속에 다시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기독교의 말씀처럼 우리 벤처인들은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계획과 설정이 다소의 오차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고객의 소리와 현장 중심의 판단과 시장 환경의 트렌드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에 이르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팀원의 팀웍 정비 및 공유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 업무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2008년 새해에는 우리 벤처인들이 추구하고 희망하는 운명과 숙명을 바꿀 수 있는 성공인으로써 진정한 벤처인으로 설 수 있다.

결과는 미리 예견될 수 있다. 실패 또한 예측될 수 있다고 본다. 성공을 향한 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같은 길을 계속가는 것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스스로 성공으로 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일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인 모두가 멋진 도전으로 성공과 친구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200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

같은 길을 계속 가는 것
 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철저한 분석
 을 통해 스스로 성공으로
 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일이다.